

다。底徑 四・九 cm 身部 肩部 徑 四・八五 cm 小形이지만 安定된 外形을 가지고 있다。

身部 周圍에는 六行에 걸쳐 十五字 乃至 十六字의 銘文이 깊이 陰刻되어 있다。

樂亭縣

延祐元年

五

號

造二五斤

一

이 銘文으로 製作이 「延祐元年」임을 알 수 있으니 延祐는 元仁宗의 年號로 高麗 忠肅王 元年 西紀 一一一四年에 該當한다。三行의 一字는 二字分인지 一字인지 不明이고 四行의 「號」二字는 이러한 鍾을 여러개 만들어서 한개마다 號數를 記刻하려는 意圖가 있었는지 모르겠다。末行의 「一」의 「一」字는 字劃 不明이나 「甬」字로 보아야 할듯하다。 「甬」은 玉篇에 「量名斛也」라 있는 點으로 보아 짐작되는바이며 前行의 「二五斤」은 「一甬」과 함께 「二五斤 二斛」의 鍾을 만들었다는 뜻으로 理解된다。 지금 이 鍾의 重量은 一斤이니 비슷한 比例라고 생각된다。 다만 첫머리에 「樂亭縣」이 무슨 뜻인지는 後考를 기다리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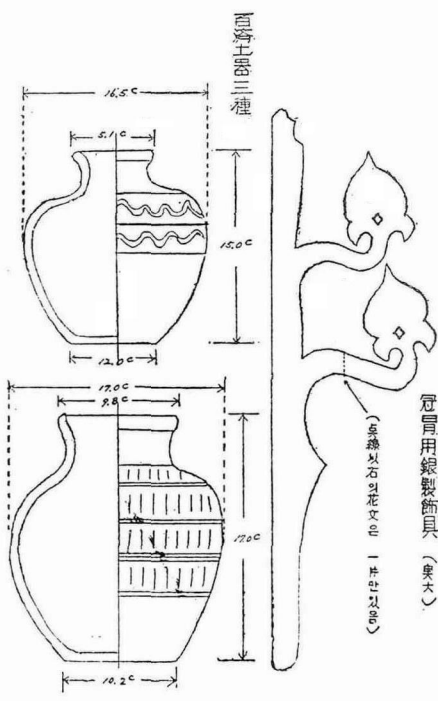
南原出土 百濟飾冠具

洪 思 俊

全北大學校博物館所藏의 百濟時代 遺物에 土器와 伴出된 銀製飾冠具가 있는데 이 飾冠具는 扶餘郡場岩面上黃里出土 그 것과 類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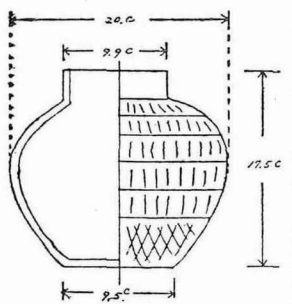
出土地는 一九六三年四月頃 南原郡二白面尺門里(자골) 金在千氏가 同里 自己所有地를 開墾하다가 나온 것이라 하며 이 遺物들이 出土한 附

第九卷 第一號 通卷九十號



近에는 古墳이 散在할 뿐만 아니라 古墳北 一 km (南原의 蓼川左岸) 地點에 是 百濟時代로 推定되는 城址가 있다고 한다。百濟遺物이 出土된 古墳 內部를 살펴보면 壙內長 約 三 m 幅 約 一・五 m 高 約 一・二 m 比較的 큰 古墳임을 알겠으며 天井蓋石만은 自然板石 數枚로 되었으나 壙 內部는 雜石으로 構築되었고 壙底에 棺臺는 亦是 雜石으로 같았다고 한다。墳墓의 位置는 南原邑에서 三 km 地點인데 墓方向은 東座西向하여서 南原邑을 向한 것이라 한다。

이 遺品의 銀製飾冠具는 壙의 東上中央에 位置하였고 土器三點은 그 左隅에 있었다고 한다。棺釘(三點)으로 볼 수 있는 그 形狀은 圓形鐵製板(徑五・五 cm)中央에 環狀고리를 갖아서 棺木에 휘어박고 그 兩端을 棺內에서 左右로 棺木에 꼬부린 鐵釘임을 알겠는데 鐵製圓板과 꼬부린 間隔이 三・六 cm 木棺厚가 짐작된다。이 古墳에서 以上 遺物을 收拾할 뿐 餘他것을 發見치 못하였다 하는데 壙內에는 이미 盜掘하였던 痕跡이 있었



다는 것이다。(全北大博物館金鍾太誌) (十一月號考美) 「全北雲峰에서 銀製冠具出土」의 雲峰은 誤記 南原으로 訂正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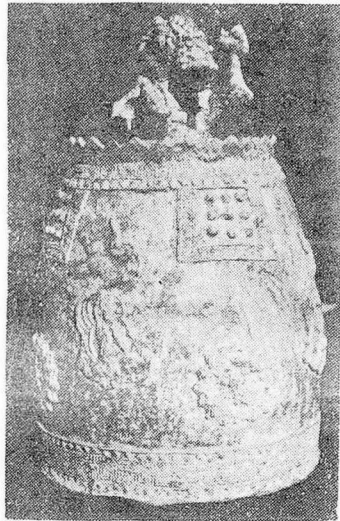
三川寺골發見 靑銅梵鍾 及 一括遺物

鄭 良 謨

昨年十一月初에 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津寬內里 윤경민씨 집에서 집을 늘이기 위하여 부엌바닥을 파다가 靑銅鍾을 包含한 一括遺物을 發見申告되어 왔기로 이에 紹介하여 두고자 한다.

北漢山一帶에는 古刹이 洞窟과 溪谷마다 자리를 잡고 그 北側인 高陽郡 神道面 쪽에도 많은 寺刹址가 尙存하고 있다. 其中에도 津寬內里의 三川寺골에는 거의 山頂에 位置한 三川寺址①를 爲始하여 山中下의 磨崖佛立像②等 골짜기마다 大小의 佛蹟이 無數히 남아 있다.

磨崖佛立像이 있는 곳에서 溪流를 따라 내려오면 左右가 가파른 山谷인데 漸次 溪流가 넓어지면서 (近年에 여기 물을 막아 「물」을 만들었다) 右側에 적은 언덕이 가로 막히고 언덕 넘어 比較的 넓직한 곳이 있다. 몇해전부터 이곳이 유원지화하여 (磨崖佛위의 自然巨石을 破壞하여 探



石場도 되고 있음) 石들이 여러채 들어 서 있다. 筆者는 이곳을 누차 다니면서 여기 버젓한 伽藍이 들어 섰을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遺物이 發見된 곳은 여기 넓직한 대지의 제일 윗부분에

該當하는 곳으로서 麗代 伽藍址의 一部였다고 생각한다.

梵鍾··이 鍾은 典型的인 麗代의 것으로 全體의 比例가 快速하고 鍾身의 曲線의 흐름이 아름다운 完美한 鍾이다. 頂部는 龍鈕를 結하고 甬筒을 갖추었으며 龍은 口에 如意珠를 물고 다시 四瓜의 左尾를 머리 앞으로 치켜들며 또 하나의 如意珠를 받치고 있다. 髮焰은 양 어깨에서 위로 향하여 甬筒上部까지 뻗었으며 他例와 달리 예쁜 唐草文樣을 하고 있다. (龍의 등어리엔 鍾을 달았던 쇠고리의 일부가 녹슬은 채 남아 있다) 甬筒은 위에 五珠를 받치고 있으며 甬身은 三區로 나누어 唐草文을 陽鑄하였다. 이 頂部는 鍾身에 比하여 녹슬어 마멸이 심하여 表面이 거의 剥落되어 細部가 不明함은 甚히 遺憾스럽다.

鍾身은 肩部에 如意頭文의 立華形을 두르고, 肩帶와 口帶를 갖추었고 肩帶에 붙여 四乳廓을 配하고 乳廓의 사이 사이에 四飛天을, 乳廓의 밑에는 四個의 撞座를 配置하였다. 立華形의 如意頭文은 故全鑿弼氏所藏 靑磁象嵌雲鶴文梅瓶③의 肩部에 둘러진 白象嵌의 如意頭文과 거의 같은 양식을 하고 있다. 口帶와 肩帶는 雷文을 主文으로 두르고 雷文의 上下面 連珠文帶를 두었는데 肩帶上部에는 連珠文이 없으며 口帶의 雷文 사이 사이에 斷片的인 雲文같은 것이 三個所에 들어 있다. 乳廓은 九乳를 內包하고 外廓은 雷文으로 되어 있으며 雷文 周圍에 連珠文은 없다. 飛天은 蓮華座에 跏趺한 菩薩形으로 身光과 頭光을 갖추었다. 撞座는 周圍의 花瓣이 重瓣의 如意頭文으로 되었으며 中心部는 寶相華文으로 되었고 如意頭花瓣內에 하나 하나 다시 忍冬文이 陽鑄되었다. 甬筒과 鍾身은 맞닿았으며 鍾身口緣의 두께는 一·七cm로 두툼하다가 차차 위로 올라 갈수록 얇아져서 예쁜 曲線을 그리고 있다.

이 鍾은 朝鮮鍾의 通式을 들어낸 高麗鍾으로서 全體比例의 調和와 鍾身의 曲線美、특히 立華形 如意頭樣式에서 十二世紀後半에서 十三世紀前半에 걸치는 作品이 아닌가 추정된다.

靑銅淨瓶·淨瓶의 一般通式을 따르고 있으며 頂部의 긴 圓筒은 九面을 이루고 있고 肩部의 注口는 넓어져 있는데 口緣에 마개를 붙였던 배목자리가 있다. 九面圓筒의 받침자리와 肩部에 二條의 陰刻帶緣이 있고